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 차단 총력

발생 없었던 충남 예산·경북 안동 소재 사과 과원에서 발생 농진청, 긴급 대책회의 열고 방제 추진상황 점검 대응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그동안 과수화상병 발생이 없었던 충남 예산과 경북 안동 소재 사과 과원에서도 확산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올해 과수화상병은 지난 5월부터 기존 다발생 지역인 충북 충주·음성·제천 충남 천안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충남 예산과 경북 안동에서 새롭게 발생한 것이다. 특히 경북의 사과 재배면적은 1만 8,705ha(2020, 통계청)로 우리나라 전

체 재배면적(3만1,598ha)의 59.2%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4일 각 도 농업기술원 원장과 국립축산식품부, 국립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발생 시·군의 예방·방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농진청은 의심신고 직후 발생 과원에 대해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예찰을 확대 추진했다. 의심신고 직후, 의심주 제거, 해당 과원 출입제한, 생석회 살포 등 조치를 실시했으며, 신속하게 매몰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안동·예산 발생지 주변 2km 내 농가를 예찰 중이며, 향후 안동·예산 전체 지역으로 예찰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과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안동 주변의 청송, 영주, 봉화, 의성 등 사과 주산지 시·군에 대한 예찰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찰 범위 등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안동

에는 농진청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대응체계를 갖추고, 농가 예찰, 예방조치, 매몰 등 방제 등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예찰결과에 따라 매몰범위의 확대와 함께 주변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북도와 안동시는 농업인의 과원 방문 제한, 기주식물 이동금지, 과원 및 작업도구 소독, 과원 관리 내역 기록 등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지난 4일 발령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작년에 비해 과수화상병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제적인 방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도내 대형건설현장의 지역업체 공사참여 기회부여와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일 우미건설 본사와 대우건설 본사를 합동 방문해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완주 삼봉지구 B-1BL 공동주택 신축 지역업체 입찰 참가·하도급률 높여야

전북도·건협 전북도회, 우미건설·대우건설 본사 방문

전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가 도내 대형건설현장의 지역업체 공사참여 기회부여와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일 우미건설 본사와 대우건설 본사를 합동 방문해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전북도와 협회는 지난해 11월에도 우미건설과 대우건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아날 전북도와 협회는 완주 삼봉지구에서 B-1BL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우미건설과 B-2BL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우건설 업무 실무자들에게 지역업체의 입찰 참가와 해당공사에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여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 하도급지원팀 이성석 팀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지역에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이어주므로 지역과 대기업이 상생해야 한다"며 "많은 전북도민들이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는 완주 삼봉지구 개발사업에 도내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와 협회는 도내 공동주택신축공사 및 새만금개발사업 관련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고자 작년 상반기에도 계몽건설을 시작으로, 롯데건설과 고려개발,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을 방문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우미건설과 대우건설, 중흥건설과 모이종합건설을 방문해 지역우수업체 홍보와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새만금 내 건설공사, 세계잼버리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전북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음을 전하면서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여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기도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도내 대형건설현장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등 하도급지원팀의 꾸준한 노력이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내 건설업체들도 희망을 갖고 공사참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발주처, 유관기관, 대형건설사 본사 및 시·군 대형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지역업체의 수주를 향상과 하도급 참여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기안전공, 창립 47주년 맞아 노사 공동 'ESG 경영' 선언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창립 47주년을 맞아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포괄하는 ESG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의지를 다졌다.

공사는 지난 4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열린 창립 기념행사에서 국민과 세 가지 약속을 담은 ESG 비전(깨끗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Clean KESCO)을 선언하고 노사 공동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선언에는 ▲환경경영 생태계를 선도하는 '환경경영' ▲취약계층 안전 복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윤리경영 실천과 무방한 의사결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실천 목표로 담았다.

이를 위해 공사는 박지현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ESG 경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업계와 시민 의견을 모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이사회 내 관련 위원회 운영' 등 20개 과제를 마련해 ESG 경영을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지현 사장은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환경과 안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책임 있는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국 재배 가능 홍산 마늘 신속보급 원예특작산업 경쟁력 강화 '인정'

농진청 원예특작화학원, 행안부 책임운영기관 '최우수'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고유 사업과 기관 관리 역량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2018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앞서 7차례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전국 재배가 가능한 '홍산' 마늘을 민·관 협업으로 현장에 신속히 보급해 우리나라 원예특작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끌어올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제 경쟁력이 우수한 품종 개발로 수출 증대를 이뤘다. /김윤상 기자

2020년 국산 품종 접목선인장 수출은 전년보다 6.4% 증가했다. 특히 주요 고객인 농업인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기술 개발을 위해 국민 참여를 제도화해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구현에 힘쓰는 점이 인정받았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황정환 원장은 "효율적인 연구 수행과 현장 보급으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은, 전주덕일초 찾아 '1사1교 금융교육'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3일 전주덕일초등학교에서 '1사1교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주덕일초등학교 5학년 80여명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용돈 관리, 세계화폐, 금융권 진로에 관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론 교육과 동영상 시청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문적인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서 및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해 경제와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금융권 진로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JB 전북은행 사회공헌부에서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일 국립산청호국원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호국보훈 탄소중립 숲 조성 나무심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호국정신 되새기는 '탄소중립 숲'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지난 4일 국립산청호국원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호국보훈 탄소중립 숲 조성 나무심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무심기에는 국립산청호국원, 경남도청, 산청군,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산청군산림조합 60여명이 참여했으며, 편백나무 1,000그루를 심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 위치한 산청호국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이 모셔져 있는 남부권 국립묘지로, 2015년에 개원, 현재 약 5,000여 기의 호국영령을 안장하고 있다.

서부청 관계자는 "산청호국원의 시설물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안장된 호국 영령들이 영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올 하반기 중기 기술혁신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 공고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과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지원 과제를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시장확대형 과제 중 후발형 기술개발 과제 확대 ▲다양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과제'와 '대중투자 연계형 과제'의 신설 지원 ▲혁신역량이 검증된 우수 창업기업 대상 기술개발 자금 연계 지원 등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중(20~35 → 10~20%)과 현금부담 비중(40~60 → 10%)을 낮추고 기술료 납부도 연장(최대 2년)하기로 했다.

사업 신청은 9일부터 24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지역 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통해서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수립

농식품부, 10일부터 상황실 운영 피해 최소화 주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1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국지적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1~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폭염일수는 평년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의 공조체계 유지, 피해발생 시 신속부응 대응하는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재해대책 상황실(6개팀)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 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상황관리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해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및 정밀조사 등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 시·도·시·군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재해대응 비상연락망(2,000명)을 구축했으며 기상청, 농진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상특보(주의보·경부) 발표 시 피해우려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및 TV 지방방송(YTN, NBS 등)을 통해 기상상황 및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도 신속히 전파한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태풍, 폭염, 집중호우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